

서평

영송이야기

한정섭법사 지음



무진장스님

<선문영송(禪門淸頌)>은 <경덕전등록(景德傳錄)>과 함께 불도수행자의 마지막 점검서로, 선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노래하고 시적이고 불교 담백한 것들을 골자만 뽑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선문영송>은 고려때 혜심스님이 30권으로 편찬한 것을 다시 거기에 각운스님이 설했고 30권을 붙여 총 60권으로 만들어 놓은 방대한 선서(禪書)이다. 과거 7불로부터 파자고목(婆子枯木)에 이르기까지 1463칙의 화두가 나오고 있으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1천7백인데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속칭 1700공안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한글도 아닌 순 한문으로된 60권의 영송을 눈여겨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선문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특별한 풀이가 없이는 그 본회(本懷)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1700공안 초심자도 이해섭도록

이 영송집은 최근 불교스님에 의하여 현토가 달아지고 김기후 거사께서 해설서를 썼으나 6.7권에 그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금번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산원 이사장 한정섭 법사가 4년의 각고 끝에 10만자가 넘는 원문을 음을 달고 현토한 뒤 간단한 번역과 주해까지 써놓은 <영송 이야기>를 펴내 초심자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우리 불교계에 큰 덕본(德本)이 아닐 수 없으니 널리 읽히길 바란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2	불교입문	조계종원각부	조계종출판사
3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4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조현준	여시아문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우·지현	효리
6	가슴을 짚는 부처님 말씀 열가지	심우·지현	민족사
7	성지와 명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8	일기 쉬운 불교미술	동국대출판부	반출판사
9	스님의 맨발	한승원	문화동네
10	납산이 북한을 보고 듯네	맹란자	네스토리

구입문의: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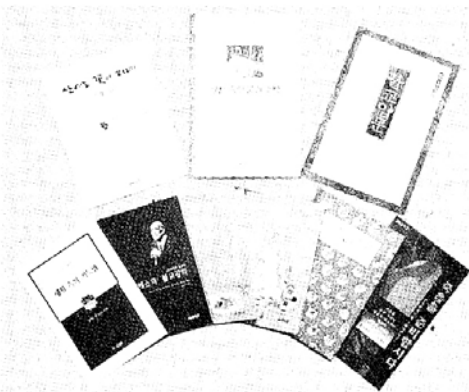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금강산 책 특화코너

북한 금강산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해 책방 여시아문 이과 관련한 책들을 모은 특화코너를 개설했다. 특화 코너에 마련된 금강산 관련 책들은 <금강산(호영)> <북한의 사찰(한국불교연구원)> <북한 불교 답사기(민족사)> <북한 사찰 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금강산도(일지사)> 등 모두 10여종.

이중 <금강산>은 화보집으로 금강산의 절경과 함께 금강산내 사찰과 불교유물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북한 불교 답사기>는 건봉사, 심곡사 등 북한내 사찰 40여곳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 사찰 연구> 역시 북한내 주요사찰들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사찰>은 묘향산 보현사 8각13층석탑과 불일사 5층 석탑 등 불교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02)737-0695

'산에는 꽃이 피네' '생활속의 불법수행' '불교입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잘 나가는 불서



◇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불서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알찬 내용으로 독자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고판 꾸준한 인기

님 말씀 3백가지'는 97년 출간돼 현재 7쇄 2만5천부 정도가 나간 상태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이상 여시아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연지문>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시리즈(민족사)> 등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내용과 가격 모두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출판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불서 출판업체인 운주사의 김시열 과장은 "좋은 내용을 현대감각에 맞게 구성해냄으로써 교훈을 주면서도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들의 강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이런 인기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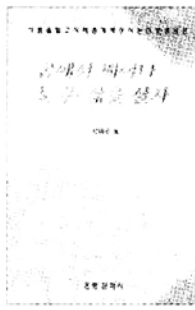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꿈에서 깨어나... 해공스님 지음

불법에서 찾은 삶의 지혜와 용기

살아간다는 것 보다 차라리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세상. 위기에 처한 사회와 가정을 구하기 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 <꿈에서 깨어나 눈 뜬 삶을 살자>는 부처님 법 속에 이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갖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법문집이지만 산문처럼 읽기 편하다.

저자 해공스님(영천 총효사 주지)은 세상을 바꾸는 지혜나 행복을 일구는 방법은 더불어 사는 공덕을 쌓고 괴안을 향해 끝없이 정진해야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IMF도 다시 복을 쌓는 준비기로 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향문화사, 7천원)



완제의 책

허무의 기록 함성호 지음

불교의 땅 티벳 여행서 얻은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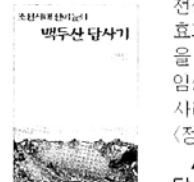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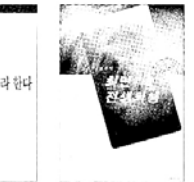
"성스러운 땅에서도 메마른 땅, 끝없는 허무의 길. 폐허같은 그곳에 바람이 불다. 바람은 티벳의 생명이다. 여기에서 나는 내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불교의 땅 티벳엔 나를 잃게 하는 묘한 마력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건축가이자 시인인 함성호씨의 티벳 기행 산문집 <허무의 기록>은 티벳의 황량한 벌판을 바람과 함께 떠돌며 스스로 발견한 고독 속으로 떠나보길 권유한다. "떠돌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헤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티벳 수도인 라사의 포탈라궁 등 불교유적에 대한 전문가인 묘사가 현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문학동네, 6천5백원)

새로운 책

▲심공=구인회 저서가 펴낸 이 책은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통해 심공(心空)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심공을 통해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공이란 몸의 모든 현상들이 공(空)에 바탕을 두고 존재한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 우주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어떠한 것도 존재치 않는 상태,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심공의 원리다. 저자는 "마음을 비울 때 깨달음을 얻듯이 몸도 비울 때 완벽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승, 5천원)

▲삶은 모든 것을 버리라 한다 =육광과 정광 등 인간성에 대한



따스한 이해가 바탕이 된 진솔한 인도대중 시선집. 현재 인도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 박사과정에 있는 재연스님이 엮었다. 이 장편 시집은 정확히 말하면 산문 담. 경구, 풍자시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산스크리트 문학의 한 장르인 '수바시따'(명언, 명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부, 사랑, 해탈의 네 가지 큰 주제로 정리된 본문의 생기법치는 절각 시편들은

우리 자신과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거리문학제, 5천5백원>
▲최면과 전생퇴행=전생퇴행요법이 마침내 심리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동아대 교육학과 실기문 교수(상당심리 및 심리치료학외)이사는 이 책에서 지난 1년간의 수백 명의 내담자들을 상담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면 및

전생퇴행의 이론적 배경과 치료 효과, 일반인을 위한 실천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전생퇴행에 성공한 사례 10가지를 골라 소개했다. <정신세계사, 8천원>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명을 받고, 혹은 개인적으로 산천을 깊이 음미하고 싶은 뜻에서 백두산으로떠나서 느낀 감회와 노정을 기록한 백두산 등정기. 1712년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백두산을 등정한 우리측 대표 박연의 '북정일기'와 통역으로 수행한 김지남의 '북정록' 등 7편의 답사기가 실려있다. <해안, 1만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리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사물),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 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